

노신 서한집 — 청년들이, 나를 믿고 오르거라

참 삶 제시할 지침서

올해는 노신이 탄생한지 110주기가 되는 해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는 대체로 망각하고 있었던 노신이나 인물들 그와 관련한 사건이나 탄생일, 아니면 숫자가 딱 채워진 10주년, 50주년 같은 때이면 새삼스럽게 중요성을 부각시켜서 큰 행사를 치르곤 한다.

‘아 Q 정전’과 ‘광인일기’ 그리고 ‘고향’이란 작품으로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작가의 인간적 모습 담겨 감명

노신의 경우에 있어서 이런 현상은 꼭 서 몇몇년이라는 숫자 크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노신이 처했던 환경에서 노신을 제외하고는 그가 어떻게 처신했고 저항했는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상황과 맞물려 합치는 가르침으로 기억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청년들이, 나를 믿고 오르거라’ (도서출판 문, 1991)라는 노신 서한집의 출간은 지금의 자연스럽고 적절한 일로 여겨진다.

노신은 혁명문학자로 중국의

신문화에 있어서 선구자였다. 그러나 역사에 이름 남긴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듯이 그도 처음부터 문학가가 될 생각은 아니었다. 의학교공부를 하고 있던 그가 문학과로 진로를 전환하게 된 경위는 아주 유명한 일화로 전해진다.

노신이 일본 센다이 학교에서 의학교공부를 하고 있을 때 러일전쟁에 관한 선전영화를 관람하게 되었다.

그 영화내용 중에 중국 사람들

이 둘러싸고 구경하고 있는 가운데서 한 중국인이 총살당하는 장면이 있었다. 교실에서 유일한 중국인이었던 노신을 제외하고는 관람하고 있던 학생들이 한호성을 치며 박수를 쳤다. 이 일은 그에게 큰 충격을 받아들여졌고 노신은 그때부터 심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기에 의식이 깨어있지 않아 구경꾼이 되어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국민의 의식을 개혁하기 위해 그는 진로를 바꿨다. 그는 ‘커다란 바위에 짓눌린 풀’

과 같은 중국인들을 작품에 등장시켜 침묵하는 중국의 현실을 타개하려고 애썼고 그러한 과정에서 자국민들에게 (타락문인)·(일본 스파이)·(매관직)이라는 등의 고통스러운 비방과 모함을 받게 되었다.

노신의 서한집 속에는 이러한 그의 고뇌와 비애까지 고스란히 담겨있다. 게다가 그의 소설과 평론에서보다 인간적 고뇌의 체취를 더욱 현실감있게 느낄 수가 있어 그의 사상이 훨씬 더 진실한 교훈으로 우리에게 부각된다. 아마도 이러한 점들이 일기나 서한집이 주는 장점이 아닐까 싶다.

소소한 사적인 이야기부터 거시적인 목표를 추진해 나가는데 따르는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뜻있는 삶을 꾸려나가기 힘든 오늘날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데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김 해 린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창작과 비평사, 1991〉

박이도 시집 — 홀로 상수리 나무를 바라볼때

창작고뇌 감내의 결실

〈창작과 비평사, 1991〉

박이도 시인의 일곱번째 시집 ‘홀로 상수리나무를 바라볼 때’ (창작과 비평사, 1991)가 나왔다. 이 시집에는 시인이 지난 4년동안 써온 61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이작품의 ‘후기’에는 작품을 쓰기 위한 ‘고뇌의 시간’을 갖는 일이 두려웠다는 언급이 있다. 종전급 시인인 그가 여섯권의 시집을 이미 상재한 바 있는 그가 왜 작품을 쓰기 위한 고뇌의 시간을 갖기가 두려워진다고 했는가?

여기에 그의 창작의 고초와 비

밀이 담겨져 있기에 이 의문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 필자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그것은 자신의 시세계에 대한 회의로부터 나온다고 본다. 그래서 그 고뇌를 더하려고 고뇌를 하는데, 창작의 힘이 그 고뇌를 감당하지 못해 그것이 두려운 것이다. 주제가 무거워져 고뇌의 무게가 점점 더해져 가는 데에서 나온 언급이라 할 수 있다. ‘홀로 상수리나무를 바라볼 때’는 이런 모든 것을 감내하며 나온 시집이다. 이 시집은 모두 4

부로 되어 있는데, 1부에서는 어두운 현실에서도 잠재력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시인의 자세가 담겨 있다. 대개 지천을 걷는 연지(年齒)에 이른 이라면 삶의 무상감에서 오는 고독이랄까 우주의 정조를 담기 마련인데 그는 보다 밝게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 특이하고 값있다.

2부에 실린 시들은 영혼의 고향을 꿈꾸며 부단히 자유를 갈망하는 시들이다.

시인은 자상에 속한 육신의 허

망함을 벗어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는 환상의 나라, 순수의 땅을 그리워하는데 이 모든 것이 비상의 이미지로 나타난다. 우리는 비상을 통한 그의 자유의지를 감지한다. 3부는 신앙인으로서의 시인의 신실한 태도를 담은 시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는 이 종교시들을 통해 예수에 대한 믿음과 찬미, 감사와 기도를 강조한다. 그러나 종교적 열정에 기운 나머지 감정의 여과가 다소 미흡하여 3부에 실린 시들은 그의 여타의 시들에

비해 질이 좀 떨어지는 편이다.

4부는 사랑의 시편들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는 사랑의 대상이 누구이든지 근본적으로 참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 사랑 시편들을 통해 일깨워주고 있다.

이렇게 볼때 이번 시집은 박이도 시인이 그 나름대로 펼쳐고자 하는 믿음, 소망, 사랑, 자유의 집적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그대로 기독교적 명제와 부합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이번 시집이 그의 종교적인 시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이는 시인 스스로가 아직도 자신이 정신적 미망에 빠져있다고 한 언급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가 계속 종교에 기대는 한 이 시집의 시세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홀로 상수리나무를 바라볼 때’는 박이도 시인을 이해하는데 좋은 지침이 되는 시집이라고 생각된다.

박 호 영
(문학평론가·건대교수)

〈문학평론가·건대교수〉

〈창작과 비평사, 1991〉

〈창작과 비평사, 1991〉

〈창작과 비평사, 1991〉

〈창작과 비평사, 1991〉

〈창작과 비평사, 1991〉

〈창작과 비평사, 1991〉

〈창작과 비평사, 1991〉

〈창작과 비평사, 1991〉

〈창작과 비평사, 1991〉

〈창작과 비평사, 1991〉

〈창작과 비평사, 1991〉

〈창작과 비평사, 1991〉

〈창작과 비평사, 1991〉

〈창작과 비평사, 1991〉

〈창작과 비평사, 1991〉

〈창작과 비평사, 1991〉

〈창작과 비평사, 1991〉

〈창작과 비평사, 1991〉

〈창작과 비평사, 1991〉

〈창작과 비평사, 1991〉

〈창작과 비평사, 1991〉

〈창작과 비평사, 1991〉

〈창작과 비평사, 1991〉

〈창작과 비평사, 1991〉

〈창작과 비평사, 1991〉

〈창작과 비평사, 1991〉

〈창작과 비평사, 1991〉

〈창작과 비평사, 1991〉

〈창작과 비평사, 1991〉

〈창작과 비평사, 1991〉

〈창작과 비평사, 1991〉

〈창작과 비평사, 1991〉

〈창작과 비평사, 1991〉

〈창작과 비평사, 1991〉

〈창작과 비평사, 1991〉

〈창작과 비평사, 1991〉

〈창작과 비평사, 1991〉

〈창작과 비평사, 1991〉

〈창작과 비평사, 1991〉

〈창작과 비평사, 1991〉

〈창작과 비평사, 1991〉

〈창작과 비평사, 1991〉

〈창작과 비평사, 1991〉

〈창작과 비평사, 1991〉

〈창작과 비평사, 1991〉

〈창작과 비평사, 1991〉

〈창작과 비평사, 1991〉

〈창작과 비평사, 1991〉

〈창작과 비평사, 1991〉

〈창작과 비평사, 1991〉

〈창작과 비평사, 1991〉

〈창작과 비평사, 1991〉

〈창작과 비평사, 1991〉

〈창작과 비평사, 1991〉

〈창작과 비평사,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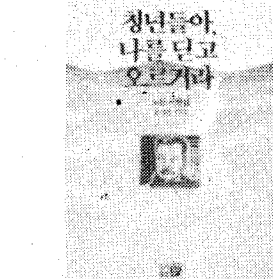
〈창작과 비평사, 1991〉

〈창작과 비평사, 1991〉

〈창작과 비평사, 1991〉

〈창작과 비평사, 1991〉

〈창작과 비평사, 1991〉



〈도서출판 문, 1991〉

과 같은 중국인들을 작품에 등장시켜 침묵하는 중국의 현실을 타개하려고 애썼고 그러한 과정에서 자국민들에게 (타락문인)·(일본 스파이)·(매관직)이라는 등의 고통스러운 비방과 모함을 받게 되었다.

노신의 서한집 속에는 이러한 그의 고뇌와 비애까지 고스란히 담겨있다. 게다가 그의 소설과 평론에서보다 인간적 고뇌의 체취를 더욱 현실감있게 느낄 수가 있어 그의 사상이 훨씬 더 진실한 교훈으로 우리에게 부각된다. 아마도 이러한 점들이 일기나 서한집이 주는 장점이 아닐까 싶다.

소소한 사적인 이야기부터 거시적인 목표를 추진해 나가는데 따르는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뜻있는 삶을 꾸려나가기 힘든 오늘날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데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김 해 린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강원대강사·영문학〉

기술혁신과 인력개발의 지렛대

기술혁신과 인력개발의 지렛대

기술혁신과 인력개발의 지렛대

기술혁신과 인력개발의 지렛대

기술혁신과 인력개발의 지렛대

기술혁신과 인력개발의 지렛대

기술혁신과 인력개발의 지렛대

기술혁신과 인력개발의 지렛대

기술혁신과 인력개발의 지렛대

기술혁신과 인력개발의 지렛대

기술혁신과 인력개발의 지렛대

기술혁신과 인력개발의 지렛대

기술혁신과 인력개발의 지렛대

기술혁신과 인력개발의 지렛대

기술혁신과 인력개발의 지렛대

기술혁신과 인력개발의 지렛대

기술혁신과 인력개발의 지렛대

기술혁신과 인력개발의 지렛대

기술혁신과 인력개발의 지렛대

기술혁신과 인력개발의 지렛대

기술혁신과 인력개발의 지렛대

기술혁신과 인력개발의 지렛대

기술혁신과 인력개발의 지렛대

기술혁신과 인력개발의 지렛대

기술혁신과 인력개발의 지렛대

기술혁신과 인력개발의 지렛대

기술혁신과 인력개발의 지렛대

기술혁신과 인력개발의 지렛대

기술혁신과 인력개발의 지렛대

기술혁신과 인력개발의 지렛대

기술혁신과 인력개발의 지렛대

기술혁신과 인력개발의 지렛대

기술혁신과 인력개발의 지렛대

기술혁신과 인력개발의 지렛대

기술혁신과 인력개발의 지렛대

기술혁신과 인력개발의 지렛대

기술혁신과 인력개발의 지렛대

기술혁신과 인력개발의 지렛대

기술혁신과 인력개발의 지렛대

기술혁신과 인력개발의 지렛대

기술혁신과 인력개발의 지렛대

기술혁신과 인력개발의 지렛대

기술혁신과 인력개발의 지렛대

기술혁신과 인력개발의 지렛대

기술혁신과 인력개발의 지렛대

기술혁신과 인력개발의 지렛대

기술혁신과 인력개발